

## 28장 -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  
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 322장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1.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2.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3.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6월 25일(목) 기도 담당 : 전관식 집사

2020년 6월 24일(수)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요한 목사

예배를 여는 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28장	.....	다	같	이
기 도	.....	.....	박형중	집사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20:20-26	.....	인	도	자
설 교	.....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	이요한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322장	.....	다	같	이
축 도	.....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 누가복음 20:20-26 >

20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1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23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6월 24일(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세상 공동체에도 동일한 충성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본이 되어 칭찬 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33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어머니, 뿌리 깊은 나무, 흐르는 물처럼 한국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전에서나 각자의 처소에서나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교역자들, 당회원들에게 모든 현안들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 안팎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경제와 남북관계,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억압과 압제에서 고통 받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하루 빨리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 생활하는 새문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